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소식

제 7 호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발행인 이승택 편집인 이재근 주소 제주시 중앙로14길 15-6 | 064)727-0617 | www.jejuregen.org

지역예술가와 학교, 그리고 도시재생

지면안내

02~09 원도심 소식

- 마을이 학교로 걸어왔어요
- 주민의 봉사모임이 협동조합이 되다
- 주민의 목소리가 계획이 됩니다
- 음식이 제주공동체의 기본

8~9 원도심 관찰일기

- 중앙로 버스정류장

10~11 원도심 탐구

- 잃어버린 제주성을 찾아서
- 관덕정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 제주성(濟州城)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 홍기표

15~16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금

“마을이 학교로 걸어왔어요”

지역예술가와 학교, 도시재생이 손을 잡다



“어느날 마을이 벌떡 일어나더니 성큼 성큼 학교로 걸어왔습니다. 학교 구석 구석에서 아이들과 숨바꼭질하고 놀던 마을 곁으로 바람이 살금살금 따라왔습니다.”

그 바람의 끝자락에서 “이제 동네방네 어른들 모시고, 뚜벅뚜벅 학교로 걸어온 마을 이야기를 풀어놓으려 합니다.” 지역 예술가들이 학교로 들어가 학생들과 함께 마을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기에 도시재생사업이 함께 손잡고 지역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자고 손가락을 얹었다.

제주북초등학교(교장 박희순)와 비아아트(관장 박은희) 제주도 도시재생지원

센터(센터장 이승택)는 12월 13일부터 이틀동안 제주학생문화원 전시실에서 ‘지역과 함께 하는 예술프로젝트 문화콘텐츠 전시회’를 열었다.

지역과 함께하는 전시회

아이들의 시선으로 본 마을 아카이빙을 지역예술가들과 연계하여 북초등학교 전교생 공동작품을 제작하여 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전시회의 이름 역시 <마을이 학교로 걸어왔어요 살금살금 바람이 따라왔어요>로 아이들의 표현을 그대로 따랐다.

평소 원도심 활성화의 일환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제주북초등학교



와 비아아트,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역 속에서 예술의 혼을 찾아 숨쉬는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제주북초등학교의 미술 교육을 색다르게 운영해 왔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내 신문지 및 종이 박스 등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미술로 진행됐다. 1학년은 관덕정 돌하르방 그리고 만들기, 2학년은 우리마을 지도 만들기과 한라산 결개그림 그리기, 3학년은 제주의 꽃 만들기, 4학년은 제주의 소와 말 만들기, 5학년은 제주를 좋아하는 상상속의 동물 부조 만들기, 6학년은 제주초가 만들기를 실시했다.

학생들이 직접 가서 측량하고 토의하며 밑그림 그리고 작품을 완성하는 모든 과

정은 학생들의 생각의 크기를 따라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창의적인 작품들이 완성됐다. 평소 마을과 지역 예술가 및 지역문화에 관심을 가져온 비아아트는 지역의 예술가들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적극 참여하여 단순히 미술을 가르치는 일보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예술을 접근하는 노력을 경주해왔다.

학생 스스로가 큐레이터

여기에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 뉴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2017년 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북초등학교 전

교생 공동작품을 제작하고 전시회를 여는데 지원하고 나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모든 작품의 제작은 물론 '우리동네 역사문화 꼬마해설사' 활동의 일환으로 작품의 큐레이터와 작품 해설 등 모든 것을 학생들이 스스로 진행할 예정이다.

초등학교는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아이들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로 예술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을 알고 애정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아이들이야말로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는 도시재생의 시작이다.

봉사모임이 협동조합이 되다

삼도2동 부녀회의 탈바꿈 <한짓골생활문화협동조합> 결성 이야기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봉사모임이 도시재생사업을 만나며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탈바꿈했다.

지난 12월 12일 삼도2동의 주민들이 '한짓골 생활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의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열었다. 불과 6개월의 짧은 기간 안에 부녀회 모임이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변화한 것이다.

특히 이들의 적극적인 조직적 변화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지원과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함께 모여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협력 결과 부녀회는 자신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천연염색 공방을 통한 주민중심의 지역 활동을 하기로 했다. 때마침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조직구성을 찾아가며 지원하던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주민협의체로 등록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삼도2동 부녀회로 시작한 모임은 공모사업을 통해 재료비와 교육실습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주민들은 지원에 힘을 얻어 모임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단순히 동호회 모임을 넘어서는 꿈을 꾸게 됐다.

네트워크 통한 상호협력

때마침 기회가 찾아왔다. 공간공유 사업을 추진하던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바로 붙어있는 낡은 공간이 입주자를 찾아나섰고 센터와 부녀회는 이 공간을 지역 주민을 위한 공방과 참여공간으로 재구성해보자는 의견을 모았다.

여기에 학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제주대학교 건축학부의 이용규 교수팀이 주민들과 함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간활용계획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면서 각 팀의 역할에 힘이 실렸다.



이후 공간구성은 주민들의 의견에 맞춰 건축학부 학생들이 알맞은 공간을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주민들은 센터와 함께 선진지 답사 등을 진행하며 콘텐츠를 확보하고 충실하게 내실을 키우는 작업을 진행했다. 매주 천연염색 실습을 통해 13명에 달하는 부녀회원들은 각자의 일에 자신감을 얻었고 마을에서 진행하는 마을 축제인 ‘삼도풍류축제’ 행사에 부스를 얻어 센터와 함께 참여, 본인들이 만들 제품을 판매하기에 이르렀다. 천연염색을 통한 업사이클링 교육은 물론 지역문화와 연계한 디자인 차별화에

대한 모색을 하기 시작했다. 함께 모여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그 공간의 활용계획도 학생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로 하는 등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천연염색을 통한 차별화

이제 남은 것은 조직의 구성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것. 단순한 동호회나 모임의 단계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도시재생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회원들은 조직의 발전단계

를 협동조합으로 설정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구체적인 컨설팅을 받아가며 협동조합을 결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지난 11월부터 5회에 걸쳐 협동조합의 실무교육과 컨설팅을 받은 이들은 쇄불도 당기며 빠라는 말처럼 더 이상 머뭇거릴 일이 없어졌다.

6개월여의 시간치고는 속도도 빠르고 결과도 아주 좋은 편이다. 이들이 진정한 의미의 마을기업으로 자리 잡으며 신명나게 일하는 일만 남아있기를 바란다. 2018년은 한짓골생활협동조합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변화, 그걸 우리가 해보려는 거죠”



한짓골생활협동조합
신유희 이사장

“매주 한번 이상은 만났어요. 한여름 무더위 속에 모기에 물려가며 천연염색 실습 교육도 했고, 도내·외로 선진지 견학도 다녀왔죠. 부녀회로 모임 때보다 협동조합을 해보자며 모임을 가질 때 더 열심히 참석했어요.”

한짓골생활협동조합의 신임 이사장으로 뽑힌 신유희 삼도2동 부녀회장은 협동조합 설립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는 이사장이 된 후의 소감에 대해 부녀회는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해왔지만 이제 내 가족과 이웃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신이사장은 이어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내려면 변화가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해보려는 거죠.”라고 말한다.

그녀에게 협동조합은 낯설면서도 새로운 도전이다.

“솔직히 아직 협동조합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배우면서 해보려고요. 우리가 협동조합을 만들고 마을공방을 꾸리면 주민들이 찾아올테고, 그들을 향해 같이 한번 해보자고 말할 수 있잖아요.”라며 진심어린 포부를 밝혔다.

‘주민의 목소리가 계획이 됩니다’

주민발언회 ‘오븐’ 4회 성료
주민 목소리의 전달 피드백

지난 7월말 ‘주민의 목소리가 계획이 됩니다’라는 캐치플레이를 앞세워 시작한 주민발언회, 공감마이크 ‘오븐’이 4회를 끝으로 올해의 마지막으로 주민모임을 열었다.

이번에 열리는 주민발언회 ‘오븐’은 3회에 걸쳐 열었던 모임의 주제들을 리뷰하면서 실제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행정에 어떤 식으로 전달됐으며 이에 대한 행정 담당 부서의 입장과 향후 계획들을 듣는 자리였다.

이를 위해 오븐 기획단은 그동안 3회까지 나온 주제와 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달여간 행정의 담당부서를 직접 찾아가 오븐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을 전달했다.

행정의 담당 공무원들은 처음에는 이같은 모임이 생소해 잘 이해를 하지 못했으나 취지와 진행과정을 설명하자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매우 반겼으며 솔직한 행정의 입장을 전달해 주었다.



이날 4회째 오븐 자리는 이같은 의견수렴과 행정의 반응을 종합한 후 주민들에게 다시 의견을 피드백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오븐은 6일 오후 12시부터 2시간 동안 삼도2동 주민센터 2층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는 오븐기획단을 비롯해 2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해 자신들이 개진한 의견들의 반향에 대해 축각을 곤두세우며 의견을 나누었다.

주민발언회 ‘오븐’은 주민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형식의 주민 발언회라는 목적으로 기획됐다. 오븐에서 빵을 구워내듯, 주민의 생각을 맛있게 구워내자는 취지로 준비됐고 발언주제도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선정됐다.

첫 회 때는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구 제주시청 부지’가 ‘제주문학관’ 건립 대상 부지 중 한 곳으로 알려지면서 ‘구 제주시청 부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려 30여 명이 참석해 열린 의견을 나누었다.

두 번째는 <길의 기억 찾기 : 삼촌들 그 길 이야기 고라줍씨>라는 주제로 제주시 원도심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세 번째 ‘오븐’은 <이 동네에서 살고 싶어요 : 우리 동네의 주거형태에 대한 고민을 함께해요>라는 주제로 살고 싶은 집에 대한 고민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공감마이크 ‘오븐’은 앞으로도 각 지역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를 주제로 삼아 주민들의 생각들을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갈 계획으로 제주시 원도심뿐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이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음식이 제주공동체의 기본

제주 음식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가능성 ‘백배’

제주음식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으로 준비된 ‘제주음식 인문학’이 4회에 걸쳐 많은 반응을 얻으며 막을 내렸다. 이번 교육은 지난 10월 중순 시작돼 11월 말까지 4회에 걸쳐 진행됐다. 매회 30여 명이 참가했으며 음식커뮤니티 활성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얻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음식관련 전문업체인 ‘푸드랩 스튜디오 담음’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진행됐다. 제주의 전통음식과 로컬푸드에 인문학적 스토리텔링을 더해 제주음식에 대한 가치를 찾고, 음식을 통한 공감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 자리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상인들에게는 요식업 메뉴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경력단절 여성 및 입도민을 포함한 주민들에게는 취·창업에 도움이 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1회때는 ‘궁중음식 무형문화재 정길자 선생에게 듣는 우리의 떡, 제주의 떡 이야기’를 주제로 국가무형문화재 제 38호 조선왕조궁중음식 기능보유자인 정길자 선생이 강사로 나섰다. 우리 떡에 대한 이야기와 가장 귀한 떡으로 대접받았던 궁중의 두툼떡을 시연했고 떡의 쓰임새 중 통과의례와 떡, 시절식과 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번째 인문학은 ‘제주 로컬푸드를 이용한 로푸드 디톡스 & 힐링요가’를 주제로 오경숙자연치유요가 오경숙 원장과의 힐링 요가와 한국 로푸드팜협회 손가운 원장과 제주 로컬푸드를 이용한 로푸드 실습 및 시연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 번째 인문학은 ‘해녀의 삶과 제주음식-시집으로 만나는 해녀의 삶과 함께하는 제주바다 밥상’을 주제로 진행했으며 네 번째는 ‘제주로컬푸드와 향토음식을 기반으로 한 제주형 도시락 디렉팅’을 주제로 소자본창업과 도시락디렉팅의 실제 사례를 다루었다.

특히 제주의 음식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와 관련한 창업아이템에 대한 토론 후 소자본창업 팁을 함께 나누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도시락 디렉팅의 예시와 트렌드에 맞는 도시락 배합 및 실습, 그리고 나만의 도시락 브랜딩 실습으로 진행되면서 창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도시재생센터는 내년에도 도시재생사업에 음식문화를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가 매우 유용하다는 판단하에 내년에도 음식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인문학 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할 예정이다.



갑자기 추워진
초겨울 **중앙로**
버스정류장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일상

2017.12.12
늦은 오후

15:00



- 중앙로사거리 버스정류장에 두툼한 외투를 입은 어르신들이 모니터를 보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음



15:42



- 버스정류장에 할머니 두 분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듯 버스 번호와 노선 안내문을 보며 대화를 나눔



15:30



- 버스를 타려다 짐을 바닥에 떨어뜨려 급하게 줍고 있는 할머니



15:21



- 중앙로사거리에는 버스 배차간격이 길어져 종종 도로가 텅 빈



15:54



- 버스 앞 문으로 내리는 할머니들이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도록 승차를 잠시 기다려주는 사람들



16:03



- 버스들이 줄줄이 도착하자 도로가 굉장히 복잡해짐



15:08



- 추운 날씨 속에 10여분을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린 어르신들은 옷깃을 여미며 얼른 버스에 올라탔



15:12



- 반대편 정류장에는 동문시장에서 양손 가득 장을 보고 온 아주머니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음



1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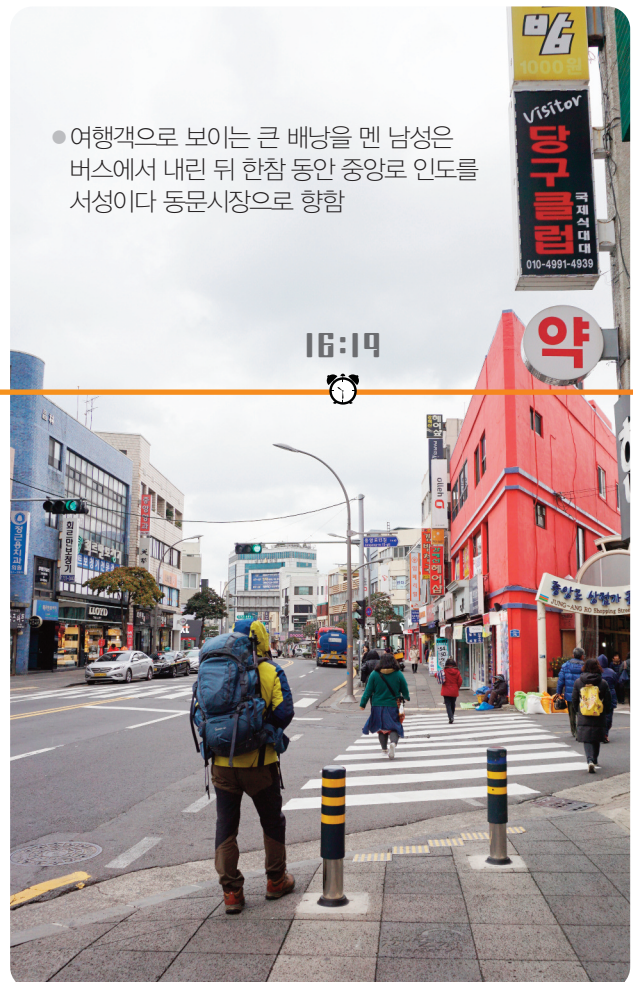
- 할머니가 노란바구니에 자투리 채소들을 잔뜩 담아 등에 짊어지고 힘겹게 횡단보도를 건너감



16:19



- 여행객으로 보이는 큰 배낭을 멘 남성은 버스에서 내린 뒤 한참 동안 중앙로 인도를 서성이다 동문시장으로 향함





잃어버린 제주성(濟州城)을 찾아서

지금은 사라져 버린 제주성 이야기와
해설사 시연행사

제주성의 흔적을 확인하고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제주성터 코스가 공개된다. 이에 따라 제주성 터를 따라 걸을 수 있는 제주성곽 지도와 제주성 주변 이야기를 담은 소책자를 발간한다. 또 옛 제주성을 전문적으로 해설하는 해설사들도 활동을 벌인다.

‘옛 제주성을 거닐다’ 소책자 발간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최근 지금은 사라져버린 제주성의 흔적을 찾아 ‘옛 제주성을 거닐다’라는 소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치성 터를 따라 걸으며 옛 제주성 이야기와 현재의 모습을 알 수 있도록 제작됐다. ‘치성’은 성벽의 바깥으로 덧붙여서 쌓은 벽으로 적이 접근하는 것을 일찍 관측하고 싸울 때 가까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한 시설로 이곳에 누각이 있으면 ‘포루’라고 한다. 제주성에는 치성이 21개소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책자에는 제주성 치성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위치에 오늘날 어떤 건물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센터는 이같은 옛 성터를 확인하는 작업을 올해 준비해왔으며 사실 확인을 위해

관련 문헌들을 조사했다. 또 문화재 위원들을 비롯한 전문가들에 자문과 사실확인을 거쳐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한편 센터는 제주 원도심을 전문적으로 해설할 수 있는 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해 ‘제주시 원도심 해설사 양성과정’을 개설해 10월말부터 11월까지 한달간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으로 구분했다. 도시재생대학 수료생 및 원도심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교

육을 진행했으며 기본교육 이수자와 기존의 원도심 해설 경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는 제주성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심화교육을 실시했다. 6명이 해설사 교육을 수료했다.

제주성 터 걷기 및 해설사 시연

센터는 12월 18일 제주성 터 걷기 및 해설사 시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제주성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



하고 그동안의 사업 경과를 설명했다. 또한 '제주시 원도심 해설사 양성과정'을 통해 제주성 및 인근 문화자원에 대한 교육을 받은 분들 3명이 해설 시연행사를 가졌다.

3명의 해설사는 제주성 남쪽과 북쪽 그리고 간성을 중심으로 세 군데로 나누어 자신들만의 독특한 해설과 문화 역사적 가치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도심올레길 조성사업의 일

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작년 말 (사)제주올레와 제주문화원과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또 제주성 및 인근지역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3회에 걸쳐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장조사를 하는 워크숍도 가졌다.

관덕정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주민모임 '응답하라 관덕정' ... 지역 활성화의 방향 찾기



관덕정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의 활성화 방향을 찾기 위한 주민모임이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관덕정지역 품격 프로젝트 '응답하라 관덕정'이 지난 11월 7일부터 12월 28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30분 예술공간 이아에서 진행중이다.

이 주민참여 프로그램은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중 관덕정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중인 기본계획 용역에 주민들의 의견을 담고 주민중심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작업이다.

주민모임은 이에따라 관덕정 지역 현재의 자랑거리와 고민 그리고 미래의 희망

과 개선점에 대해 주민들의 생각을 듣고 보고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따라 단순한 의견청취의 단계를 넘어 체계적으로 의견을 도출하고 이를 의제별로 정리하는 퍼실리테이션기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11월 14일 진행한 1차모임에는 지역주민 26명이 참석했으며 관덕정지역의 주민참여형 계획수립계획에 대해 설명을 가졌다.

11월 21일 진행된 2차모임에서 주민들은 시장이 가깝고 교통편리성이 좋은 점 등 옛 중심지로서의 전통과 자부심 등

관덕정 지역의 자랑거리를 제시했다.

3차모임에서는 교통, 상권, 지역자원, 시설물,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지역의 고민거리와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꺼내며 의견을 제시했다.

앞으로 주민모임은 퍼실리테이션을 통해 관덕정 미래상 구상과 계획의 우선순위 결정 등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서 발굴된 지역의제와 해결책 등은 내년까지 진행되는 관덕정광장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에 반영된다.

제주성(濟州城)

흥기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



1. 제주성의 개요

제주성이 언제 처음 축조되었는지 옛 문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탐라국 시대부터 이미 축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481년(성종 12)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제주목 고적, 고성)에 의하면 “주성(州城) 서북쪽에 고성의 옛터가 있다.”고 하였다. 이 사실에서는 두 가지 내용이 확인된다. 첫째 조선시대의 제주성은 주성으로 불렸다. 둘째 제주성과 다른 옛 성이 조선시대 이전에 이미 축조되어 있었다. 이처럼 제주성이 사료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조선시대부터이다.

『태종실록』(태종 8)에 의하면 “제주에 큰비가 내려서 물이 제주성에 들어와 관아와 민가가 물에 잠기고, 곡식의 절반이 침수되었다(1408. 08. 19.).”고 하였다. 뒤이어 『태종실록』(태종 11)에 다시 “제주성을 수축하도록 명령(1411. 01. 03.)”을 내린 기사도 보인다. 따라서 최소한 조선 태종 이전에도 이미 제주성은 축조되어 있었다. 이후 여러 차례 보수를 거치며 19세기까지 제주목 관아 및 민가를 보호하는 읍성으로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로 접어든 1913년 이후 1920년대까지 불과 20년 사이에 제주성은 철폐되어

제주를 상징하는 대표적 축조물이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다.

제주성을 별도의 제목으로 내세워 해설하고 있는 최초의 사료는 『세종실록』 「지리지」(전라도, 제주목)이다. “읍성성은 둘레가 910보이다.”라고 하여 규모만 제시하고 있다. 뒤이어 『신증동국여지승람』(제주목, 성곽)에는 “석축이며 둘레 4,394척, 높이 11척”이라 하여 성의 높이를 더 소개하고 있다. 또한 “성안에 물이 없어 남동쪽 산지천 변의 가락천(嘉樂泉)에 식수를 확보하기 위한 겹성(重城)을 쌓았다.”는 사실도 전한다.

제주성의 규모와 각종 문루의 설치 및 격대·타점 등의 부대시설을 자세히 전하는 사료는 1653년(효종 4) 이원진(李元鎭) 제주목사 때 편찬된 『탐라지』이다. “석축, 둘레 5,489척, 높이 11척”의 규모, “동문남문서문의 3문과 남북수구의 수구 2문” 등 문루 설치, “격대 27개소, 타점 404개”의 부대시설 등이 소개되어 있다. 또한 “1565년(명종 20) 괄홀(郭屹) 목사가 동성을 퇴축하여 가락천과 산지천이 성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까지 전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은 이후 유형원(柳馨遠)의 『동국여지지』 및 이원조(李源祚)의 『탐라지초본』과 『제주읍지』 등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그대로 전한다.

한편 1512년(중종 7) 김석철(金錫哲) 목사 때는 남문루를 새로 창건하여 정원루라 제액을 붙였다는 사실이 전한다. 이 때 강혼(姜渾)이 지은 「정원루 기문」(이원진, 『탐라지』)에 의하면, 김석철 목사는 “제주성의 주위에 긴 참호를 아주 깊게 파서 성문보다 낮게 하여, 모두 널판으로 다리를 놓아 밤에는 들어 올리고 낮에는 깔아 놓아 걱정이 없게 방비하였다.”라고 하였다. 이 기록으로 인해 제주성 주위에는 해자를 축조하고 관교를 시설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사실은 김상헌(金尙憲)의 『남사록』(1601.10.23.)에도 제주성에는 “격대(擊臺)·포루(炮樓)·호자(壕子)·적교(吊橋)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고 하여 다시 한 번 확인된다.

제주성에 대해서 가장 많은 사실이 소개되어 있는 사료는 제일 후대인 1953년에 편찬된 담수계(淡水契)의 『증보탐라지』이다. 여기에는 위의 여러 『탐라지』 등에서 소개하는 사실 외에 홍수 예방을 위해 산지천 서안에 간성(間城)을 쌓은 사실과 간성의 남북에 2문을 축조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전한다. “1780년(정조 4) 목사 김영수(金永綬)가 옛 성터에다 간성을 쌓아서 홍수 폐단을 없애니 길이가 551보요 높이가 9척이다. 그리고 두 문을 설치하여 남문을 소민(蘇

民), 북문을 수복(受福)이라 하였다. 1847년(헌종 13)에 목사 이의식(李宜植)이 수복문(受福門)을 중인문(重仁門)으로 편액을 고쳤다.”

제주성은 평지에 타원형으로 쌓았으며, 웅성과 치성까지 갖춘 전형적인 성곽이었다. 웅성이란 적이 직접 성문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성문을 공격하는 적을 측면과 후방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성문 바로 앞을 반원형으로 빙 둘러 쌓은 성곽 시설이다.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치성이 있는데 성의 요소요소마다 성벽에서 ㄷ자형으로 돌출시켜 좌우 방향에서 성벽에 붙은 적을 방어하기 위한 시설이다. 웅성은 제주성의 동문서문남문의 3대문 앞에 시설되었으며, 치성은 제주성을 빙둘러가며 21개소에 시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제주성의 문루

제주성은 3문(동문·서문·남문), 2수구(남수구·북수구), 간성 2문(소민문·중인문)을 축으로 연결되며 이루어졌다. 성의 북쪽은 해안과 가까워 북문은 세우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제주성은 처음 축조되었을 때부터 동문, 서문, 남문의 3문만 있었다. 1565년에는 곽휼 목사가 동성을 뒤로 물려 쌓으면서 산지천이 성안으로 들어왔다. 이리하여 산지천의 서안과 동안을 연결하는 수구문 축조의 필요성이 생겼으며, 1599년(선조 32) 성윤문(成允文) 목사가 남북수구 2문을 축조하였다. 동성 퇴축의 이유는 첫째, 성 동쪽 언덕에서 보면 성내가 완전히 노출되어 외적의 침입 방어에 문제점이 있었고 둘째, 성안에 마실 샘물이 없어서 가락천과 산지천 등의 샘물을 성안으로 들이기 위함이었다. 마지막으로 1780년 김영수 목사가 산지천 서안으로 간성을 축조하면서 간성 남문북문의 2문이 축조되었다. 그 이유는 잦은 산지천의 범람으로 인한 홍수 피해 예방 차원이었다.

1) 삼문

동문: 제주 동성의 문으로 문루의 옛 이름은 제중루(濟衆樓)이다. 1666년(현종 7), 1808년(순조 8), 1856년(철종 7) 세 차례에 걸쳐 중수하였으며 일제강점기인 1914년 문루가 철폐되었다. 동문은 1565년 곽휼 목사가 동성을 퇴축하기 전까지는 산지천 서안에 있었다. 1780년 김영수 목사가 산지천 서안에 간성을 세울 때 간성 남문인 소민문이 바로 옛 동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601년 제주를 방문했던 김상헌의 『남사록』(1601.10.23.)에 “제주성에는 동문·서문·남문의 세 문이 있으며, 문에는 모두 초루가 있다.”고 하였는데, 그보다 50년 뒤인 이원진의 『탐라지』(1653년)에 동문루의 명칭은 제중루라고 소개되어있다. 반면 1843년에 편찬한 『탐라지초본』 이후에는 동문루가 연상루(延祥樓)로 소개되어있다. 따라서 1653년 이후 제중루가 연상루로 편액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동문루에 대해서는 두 편의 글이 전하는데, 오점(吳靄)과 김양수(金亮洙)의 「연상루중수상량문」이다. 오점의 글은 1808년 한정운(韓鼎運) 목사 때 중수하면서 지은 글로 추정되며, 김양수의 글은 1856년 채동건(蔡東健) 목사 때 중수하면서 지은 글이다.

남문: 제주 남성의 문으로 문루명은 정원루(定遠樓)이다. 1512년(중종 7) 목사 김석철(金錫哲)이 창건하였으며, 그 후 1705년(숙종 31), 1780년(정조 4) 두 차례 중수하였다. 일제강점기인 1918년 문루가 철폐되면서 3문 중 가장 마지막에 헐렸다. 정원루는 이원진의 『탐라지』 이후 모든 제주 지지서에 김석철 목사가 창건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남문루는 그 이전부터 있었다.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인 강혼(姜渾)이 지은 「정원루기」에 따르면 “예전에 있었던 남문루가 협소하고 낡아서 새롭게 증축하고는 편액을 정원이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남문루를 정원

루로 부르게 된 것은 1512년 이후이며, 그 이전의 명칭은 알 길이 없다.

서문: 제주 서성의 문으로 문루의 옛 이름은 백호루(白虎樓)이다. 백호는 동서남북 네 방위 중 서쪽을 수호하는 방위신이다. 따라서 문루 편액을 백호루로 정한 것이다. 1739년(영조 15), 1773년(영조 49) 두 차례 중수하였는데 특히 1773년 목사 박성협(朴聖俠)이 중수할 때 편액을 백호에서 진서(鎭西)로 고치고 친필로 제액을 썼다고 전한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문루가 철폐되었다. 오늘날 남문·동문루에 대해서는 전하는 기문(記文)들이 있지만 서문루에 대해서는 전하는 글이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2) 수구 이문

수구 2문의 축조는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산지천이 제주성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즉 1565년 곽휼 목사가 가락천을 성안으로 들이는 동성의 퇴축이 이루어지면서 산지천을 동서로 연결하는 수구가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정작 남북 수구의 2문이 축조된 최초의 기록은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후인 1599년 성윤문 목사 때였다. 이때의 수구 2문은 모두 무지개다리인 홍문(虹門)으로 지었다고 한다. 다만 석축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1653년 이원진 목사 때 북수구의 문루인 공진루를 축조할 때 지은 신찬(申纘)의 기문에 의하면 “나무를 엮혀 다리를 만들어도 홍수 예방이 안 되어서 석문으로 짓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원진 목사 이후에야 남북 수구가 석문으로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홍수가 발생할 때마다 남북 수구 2문은 자주 무너져 보수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남북 수구의 2문은 석축의 홍예문으로 일제강점기까지 이어지다가 1927년 7~8월 큰 비로 무너져 내린 후, 더 이상 복원하지 않아 역사에서 사라져 갔다.

남수구: 1599년(선조 32) 목사 성윤문이 창건하였다. 1652년(효종 3) 8월에 큰 비바람 때문에 남북 수구가 모두 저절로 무너지자, 목사 이원진이 겨울에 복구공사를 하여 이듬해 봄에 중건하였다. 이때는 석문으로 축조하였으며, 북수구에는 공신루라는 문루를 세웠지만 남수구 문루에 대한 기록은 없다. 아마도 남수구 서안 성 남쪽 모퉁이 가장 높은 곳에 제이각이 성윤문 목사 때 이미 축조되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남수구의 문루를 축조할 필요가 없었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성안의 형세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제이각이 곧 남수구의 문루 역할을 했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 흥에 석문의 형태로 이어 온 남수구는 이원진 목사의 개축 이후에도 1720년(숙종 46), 1768년(영조 44), 1808년(순조 8), 1870년(고종 7), 1887년(고종 24)까지 총 5차례나 개축하였다.

북수구: 1599년 목사 성윤문이 창건하였다. 1652년 이원진 목사가 남북수구 2문을 축조하면서 북수구 문루명을 공신루(拱辰樓)라고 지었다. 당시 지은 신찬의「공신루기」에 의하면, 공신루는 두보(杜甫)의 시「중야(中夜)」의 ‘높은 다락에서 북극성을 바라보다(危樓望北辰)’에서 취한 뜻이라고 해설하고 있다. 그런데 공신루 이전에도 북수구의 문루는 있었으며, 그 제액은 죽서루(竹西樓)였다. 이원진 목사의 복구 이후 북수구는 1665년(현종 6), 1768년(영조 44), 1808년(순조 8) 세 차례 개축하였으며, 특히 1808년 한정운 목사 때는 북수구 문루인 공신루까지 중건하여 공신정으로 편액을 바꾸었다. 1831년(순조 31)에는 이예연(李禮延) 목사가 홍수 때마다 홍문과 누정이 무너져 백성들이 새로 개축하느라 고통이 심하다 하여 공신정을 삼천서당(三泉書堂) 북쪽으로 이건하였다. 이후부터 북수구의 문루는 없어졌으며, 단지 홍문만 남게 되었다. 1847년(현종 13)에는 이의식(李宜植) 목사가 북수구를 뒤로 물려 쌓

았으며, 1870년(고종 7) 전후 조희순(趙義純) 목사가 남북 수구의 홍문을 개축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3) 간성 이문

1780년(정조 4) 김영수 목사는 산지천의 잦은 범람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지천 서안으로 간성을 축조하였다. 간성의 길이는 551보이고 높이는 9척이었다. 또한 간성의 남쪽과 북쪽에 2문을 축조하였는데 간성 남문을 소민문(蘇民門), 간성 북문을 수복문(受福門)이라 제액하였다. 1846년(현종 12) 이의식 목사는 수복문을 중인문(重仁門)으로 편액 이름을 바꾸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중인문이 먼저 헐렸고, 1915년 소민문마저 철폐되었다. 한편 간성 2문의 축조 사실이 처음 전하는 사료는 이원조의『탐라지초본』이다. 그러나 기록된 내용이 “성 안에는 간성이 있다. 목사 김영수가 쌓아서 산지천의 범람을 예방하였다.”고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에 비해 담수계의『증보탐라지』에는 간성의 규모, 2문의 축조와 제액, 증개축 사실까지 비교적 상세히 전한다. 또한 김석익의『탐라기년』부록에는 1910년대 중반 2문이 헐렸다고 기록되어 있어 일제강점기 초기에 이미 간성 2문은 사라졌음이 확인된다.

3. 제주성의 철폐

제주성은 1910년 일제 강점기로 접어들기 전까지는 증개축 등을 통해 제주섬의 역사와 함께 존재해 왔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이후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제주성이 헐리기 시작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철폐시킨 것이 아니라 20년간에 걸쳐 서서히 무너뜨려갔다. 1910년대는 주로 문루에 대한 철폐가 이루어졌고, 1920년대에는 성벽 전체를 헐기 시작했다. 특히 1926년부터는 일제가 동부두·서부두를 축조하고 산지포를 매립하는 산지항 축항공사를 진행하면서 제주성 3면의 성담 상당 부분을 바다에 매립함으로써 제주성의 성체는 대부분 사라져버렸다.

제주성의 철폐 과정은 심재 김석익(金錫翼)의『탐라기년(耽羅紀年)』부록에 그 사실이 전한다. 그에 따르면 1913년 북성문이 가장 먼저 철폐되었으며, 1914년에는 연상루(동성 문루), 진서루(서성 문루), 중인문(간성 북문) 등이 무너져 갔다. 1915년에는 소민문(간성 남문)과 북성이 철폐되었고, 1918년 정원루(남성 문루)가 철폐되면서 제주성의 문루는 모두 철폐되었다. 1923년 동성에 측후소가 개설되면서 성벽이 헐려 나갔으며, 1926년부터는 산지항 축항공사로 인해 제주성의 3면이 무너져 갔다. 1927년 남북수구의 홍문은 홍수로 붕괴되면서 더 이상 복원하지 않아 제주성의 시설들이 사실상 역사에서 사라져버렸다. 현재의 제주성은 잔존해 있던 남성 일부 구간(오현단 후면 남쪽)을 보수하여 남성 동쪽 150여m 구간과 3개의 치성이 정비되었다. 그 외에는 남서쪽 방향의 전 제주대학교부속병원 일원 및 동북쪽 제주기상대 지역에 극히 일부의 성급 및 성담이 남아 있다.



서귀포시 도시재생 주민 교육 스타트

서귀포시 도시재생 아카데미 성황리에 종료



본격적인 서귀포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을 알리는 도시재생 아카데미가 성황리에 마쳤다.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11월 1일부터 22일까지 매주 수요일, '서귀

아보는 자리의 첫발을 내딛었다. 특히 이번 아카데미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진행에 맞춰 주민참여에 의한 상향식 도시재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시민 교양 강좌로 기존의 전면 철거방식의 재개발 사

포시 노인복지회관에서 총 4강으로 구성된 '서귀포시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45명이 신청해 향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서귀포시 도시재생 사업의 가능성을 찾

업과는 다른 도시재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성격을 지닌다.

1강에서는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서귀포 내의 건축자원을 파악하고 2강에서는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경제'에 대해 알아봤다. 3강에서는 '인천 아트플랫폼'의 사례를 통해 오래된 폐창고가 어떻게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였는지를, 그리고 마지막 4강에서는 서귀포시의 역사문화자원의 현황과 활용방안을 살펴봤다.

이번 교육을 수료한 분들에게는 서귀포시 도시재생 아카데미 수료증이 발급됐으며 도시재생 사업 참여 및 도시재생대학 수강 우선 자격을 부여한다.

참여에서 실질적인 주민활동가로 거듭나다

주민 활동가 17명 도시재생 퍼실리테이터 교육 수료



도시재생 활동가 양성교육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이 11월부터 12월 5일까지 이뤄졌다.

이 교육은 도시재생대학의 공통이론과정과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 참여의 기초를 닦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시재생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들도 대상에 포함됐다. 도시재생 활동가로서 현장 활동 역량 강

화를 목적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진행될 도시재생사업의 실질적인 주민활동가로서 역할을 맡게 되며 주민 모임의 퍼실리테이터로서도 활동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도시계획 퍼실리테이션의 이해와 기본스킬을 비롯해 아이디어 발산 및 수렴방법, 의사결정 등의 교육과 함께 개별 실습도 진행했다. 지난 9월 센터는 사단법인 한국도시계획기

술사회가 운영하는 도시계획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을 제주도에서 진행한 바 있다. 이 교육을 주관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앞으로 교육 수료자들로 하여금 주민 토론회나 모임 진행시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는 도시재생대학 수료자 8명과 현장 활동가 6명 등 총 14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도시재생 뉴딜 전문가가 필요하다

주거복지, 일자리 창출 등 사업에 맞는 집중 교육 실시



기 위해서는 참여주체의 역량강화가 필수라는 점을 바탕으로 지자체공무원 총괄코디네이터, 현장 활동가의 전문성과 지역 주민·상인의 적극적 참여가 핵심요소라는 사실을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도시재생 수요가 대폭 증가한 만큼 교육을 통한 정책방향 공유 및 전문가 양성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필요성에 기인했다.

이번 교육은 주거복지, 일자리 창출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내용과 추진목표를 공유하고 현장조사, 워크숍 등을 거쳐 실천 가능한 도시재생 제안서를 수립하도록 하는 등 액션러닝 방식으로 교육이 추진됐다.

이밖에도 앞으로도 총괄 코디네이터 양성교육과 코디네이터 및 현장 활동가 양성교육, 지역주민 교육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전국적인 도시재생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거복지, 일자리 창출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 코디네이터·활동가 양성교육이 도시재생지원센터 주관으로 11월부터 12월초까지 6주간에 걸쳐 실시됐다.

국토교통부와 LH도시재생지원기구가 공동주최하고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관한 이 교육은 지자체 공무원, 중간지원조직 근무자, 마을 및 도시 활동가, 도시재생대학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11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총6주간 진행됐다.

간 매주 금요일 하루 종일 실시되는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27명이 수료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교육은 지역이 주도하는 Bottom up 방식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하

뉴딜사업의 관심 확인

교육 커리큘럼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개념은 물론 건축 및 단지계획, 사회 복지를 비롯해 젠트리피케이션 대응과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민 참여 활성화와 현장조사에 이르기까지 올해 새롭게 시작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총체적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에는 총 42명이 신청하여 6주

